

토요타코리아, 9세대 완전변경 '캠리 하이브리드' 출시

9세대 완전변경 모델...디자인·성능·주행·상품성 강화
가격 4800·5360만원...출시 기념 '보장할부 프로그램'

한국토요타자동차가 '2025년형 캠리 하이브리드(HEV)'를 국내 출시하고 본격 판매에 돌입한다. 캠리는 일본 토요타의 대표 중형 세단으로, 국내에서는 2009년 첫 출시됐다. 2025년형 캠리 HEV는 9세대 완전변경 모델로, TNGA-K 플랫폼을 기반으로 디자인, 성능, 상품성이 대폭 강화됐다.

2025년형 캠리 HEV는 '에너제틱 뷰티' 디자인 콘셉트 아래 외관을 더 넓고, 낮게 만들었고, 레이싱에서 영감을 받은 에어벤트를 적용해 날렵함을 강조했다.

실내는 12.3인치 멀티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와 12.3인치 터치형 센터 디스플레이가 적용됐다. 차량에는 5세대 THS(토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가 탑재돼 엔진과 모터의 출력이 크게 개선됐다. 2.5리터 직렬 4기통 가솔린 엔진과 전기모터를 조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총 227마력의 시스템 출력을 발휘하고, 17.1km/L(복합연비)의 연비를 유지했다.

또 엔진 소음과 진동, 풍절음 등을 줄였고, 서스펜션 개선을 통해 승차감이 강화됐다고 한국토요타는 전했다.

이 밖에도 안전 사양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TSS)'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토요타 커넥트(Toyota Connect)', 안드로이드 오토 및 애플 카플레이가 전 트림에 기본으로 제공된다.

2025년형 캠리 HEV는 XLE 그레이드와 XLE 프리미엄 그레이드 등 총 2가지 그레이드로 출시되며 모두 일본에서 생산된다. 권장소비자가격은 ▲XLE 그레이드 4800만원 ▲XLE 프리미엄 그레이드 5360만원이다. (부가세 포함, 개별소비세 5%)

강대환 토요타코리아 부사장은 "캠리는 국내 수입차 중형 세단의 대명사로 꾸준히 사랑받아온 모델"이라며, "이번에 새롭게 소개하는 '2025년형 캠리 하이브리드'는 완성도 높은 주행 성능과 편의사양 등 상품성이 대폭 강화된 모델로 전환형 하이브리드를 찾는 고객들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요타코리아는 2025년형 캠리 하이브리드 출시를 기념해 월 40만원대에 XLE 그레이드를 구입할 수 있는 '에어미팅 스위치 잔존까지 보장할부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만기 시점에 차량 매각 후 토요타파인서비스코리아의 금융을 통해 재구



한국토요타자동차가 2일 출시한 '2025년형 캠리 하이브리드(HEV)' 내외관. 2025년형 캠리 HEV는 9세대 완전변경 모델로 디자인과 성능, 상품성이 대폭 강화됐다. <한국토요타 제공>

매 시 36개월 기준, 유예금액 5% 면제혜택을 포함해, 최대 60%를 보장해 준다. 캠리 XLE 그레이드의 경우 36개월 동안 잔존까지 55% 보장해주고,

초기 20% 선수금과 20% 보증금을 내면 월 40만원 대로 이용할 수 있다. (연 주행거리 2만km 미만) 2025년형 캠리 하이브리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토요타코리아 홈페이지 또는 전국 토요타 공식 딜러 전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부분 변경 모델' 디자인 공개

내년 1분기 가격 공개 판매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가 2일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GV70 전동화 부분 변경 모델(GV70 전동화 모델)의 디자인을 공개했다. GV70 전동화 모델은 G80 전동화 모델, GV60에 이은 제네시스의 세 번째 전기차로, 2022년 3월 처음 출시됐다. <사진>

제네시스는 브랜드 디자인 철학인 '역동적인 우아함'에 따라 브랜드의 세련미를 강화하는 동시에 전기차의 역동성을 강조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전면부는 지-매트릭스 패턴을 따라 음영이 깊어지는 그라데이션 형태의 새 크레스트 그릴이 탑재됐다.

또 제네시스의 시그니처 디자인인 두 줄 헤드램프에는 높은 밝기를 구현하는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MLA) 기술이 적용됐다. 측면부는 무광 진회색 색상의 20인치 신규 휠이 추가됐고, 기존 19인치 휠의 색상도 변경됐다.

후면부는 방향지시등 위치를 범퍼에서 후면부 램프로 옮겨 시인성을 높였고, 두 줄 디자인을 적용해 전·후면 통일성을 확보했다.

또한 리어 스포일러에 있는 보조제동등(HMSL)의 형상을 직선화하고, 보조제동등 아랫부분에는 디지털 센터 미러와 발드인캡 기능의 두 카메라



를 통합한 모듈을 탑재했다.

GV70 전동화 모델의 실내는 또 다른 제네시스의 디자인 철학인 '여백의 미'를 계승했다. 제네시스는 GV70 전동화 모델에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하나로 합친 27인치 통합형 와이드 디스플레이, 터치 타입 공조 조작계를 탑재했다.

은하수를 형상화한 도어 장식과 무드 램프를 조합해 전기차 전용 '밀키웨이 패턴 무드라이팅'을

구현했고, 운전대에는 제네시스의 신규 엠블럼이 장착됐다. 아울러 밴드드올륨톤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됐다.

GV70 전동화 모델은 외장 색상으로는 세레스 블루를, 내장 색상으로는 아이시 블루-클래이셔 화이트 투톤을 추가했다. 제네시스는 내년 1분기 중 GV70 전동화 부분 변경 모델을 출시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기아 한층 강력해진 'EV6 GT' 계약 개시

런치컨트롤 등 적용 주행성능 ↑

기아가 고성능 전기차 EV6 GT의 상품성 개선 모델인 '더 뉴 EV6 GT' <사진>의 계약을 시작했다.

2일 기아에 따르면 더 뉴 EV6 GT는 주행의 역동성을 높일 특화 사양을 새롭게 적용해 상품성을 강화했는데도 판매 가격은 이전 EV6 GT 수준과 같다는 것이 특징이다. 기아는 더 뉴 EV6 GT의 전·후륜 모터 성능을 합산 최고 출력 448kW(609마력), 최대 토크 740Nm(75.5kgfm)로 향상하고, 런치 컨트롤, 가상 변속 시스템(VGS) 등을 추가했다. 런치 컨트롤은 차량 급가속을 돕는 시스템이고, 가상 변속 시스템은 전기차 모터 제어를 통해 내연기관 차량의 변속 느낌을 제공한다.

런치 컨트롤 작동 시 EV6 GT의 전·후륜 모터 성능은 합산 최고 출력 478kW(650마력), 최대 토크는 770Nm(78.5kgfm)로 높아진다. 정지 상

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인 제로백은 3.5초다.

더 뉴 EV6 GT는 84kWh(킬로와트시) 4세대 고전압 배터리 탑재로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 355km를 확보했다. 배터리 용량이 늘었는데도 기존 350kW급 충전기로 18분 이내 배터리 용량 10%에서 80%까지 충전할 수 있다.

더 뉴 EV6 GT는 전자제어 서스펜션(ECS)과 전자식 차동제한 장치(e-LSD)가 기본 적용돼 차체 가동을 안정적으로 제어하고, 전·후륜 대용량 디스크 브레이크는 최대 감속력 0.6g의 회생제동을 구현한다.

기아는 더 뉴 EV6 GT 전용 스위트 스포츠 버킷시트에 기존의 1열 열선·통풍 기능 외 파워 시트 기능을 추가했고, 운전석에 운전 자세 메모리 시스템과 이지 액세스 기능을 적용해 주행 자세를 간편하게 설정할 수 있게 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기아 강진수 선임 '그랜드 마스터' 등극

누계 판매 대수 4000대 달성

기아는 2일 "서울 남부 송파지점 강진수 선임 오토컨설턴트(사진)가 누계 판매 대수 4000대를 달성해 '그랜드 마스터'에 올랐다"고 밝혔다.

그랜드 마스터는 누계 판매 4000대를 기록한 오토컨설턴트에게만 주어지는 칭호다.

강 선임 오토컨설턴트는 1996년 입사해 29년 동안 연평균 138대, 누적 4006대를 판매해 32번째 그랜드 마스터에 올랐다.

그는 "앞으로도 처음 입사할 때의 다짐처럼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기아는 영업직 직원을 격려하고, 건강한 판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 판매 명예 포상 제도와 기아 스타 어워드 등 포상 제도를 운용 중이다.

회사는 장기 판매 명예 포상제도의 일환으로 누적 판매 실적에 따라 '스타'(2000대), '마스터'



(3000대), '그랜드 마스터'(4000대), '그레이트 마스터'(5000대)라는 장기 판매 명예 칭호를 부여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현대차그룹 영국 탐기어 어워드 4년 연속 수상

기아 EV3 '올해의 크로스오버'

현대차그룹은 영국 유력 자동차 전문매체 탐기어가 주관하는 '2024 탐기어 어워드'에서 현대차 싼타페가 '올해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기아 EV3가 '올해의 크로스오버'에 각각 올랐다. 이로써 현대차그룹은 탐기어 어워드에서 4년 연속 수상 기록을 이어가게 됐다.

탐기어는 싼타페에 대해 차별화된 박스형 디자인을 갖추고 동급 최고 실내 공간을 제공한다고 호평했다. 또 1.6 터보 하이브리드(2WD, 4WD)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4WD) 파워트레인,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과 다양한 안전 및 편의 사양이 풍부하게 탑재돼 운전자에게 편안한 주행 경험을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기아 EV3는 유럽(WLTP) 기준 605km에 달하

는 1회 충전 거리와 다양한 편의 사양을 갖춰 높은 상품 경쟁력을 확보한 점을 인정받았다.

책 릭스 탐기어 편집장은 "EV3는 미드 사이즈 전기차 크로스오버 모델이 증가하고 있는 시장 상황 속에서 혁신적인 디자인, 넉넉한 실내 공간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주행 거리 불안감을 없앨 수 있는 충분한 1회 충전 주행거리 등으로 두각을 나타냈다"며 "전용 전기차 EV6와 EV9의 뛰어난 상품성을 이어받은 EV3는 기아의 놀라운 신차 출시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호평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 전문 매체에서 우수한 기술력과 상품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기술과 디자인의 한계를 넘어 고객의 삶을 향상할 수 있는 제품을 혁신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벤츠 코리아 유망기업 성장 돕는 프로젝트 성료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2일 "지난달 29일 유망기업 육성 프로젝트인 '스타트업 아우토만 코리아 2024' 엑스포 데이를 열고 최종 성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사진>

스타트업 '럼블리어'는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를 위한 고효율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 기술을 검증하는 데 성공했고 '와이퍼워원'은 전기차 무선 충전 설루션을 제시했다고 벤츠 코리아는 전

했다. 스타트업 아우토만 코리아는 2020년 처음 개최돼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다. 현재까지 육성 지원을 받은 국내 스타트업은 총 63곳이다.

마티아스 바이틀 벤츠 코리아 대표는 "앞으로도 국내 스타트업 육성 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협업을 통한 끊임없는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렉서스코리아 21일까지 겨울맞이 서비스 캠페인

렉서스코리아가 오는 21일까지 '렉서스 겨울맞이 서비스 캠페인'을 실시한다. 렉서스코리아는 'ES 300h'가 자동차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사이트의 수입차 세단 부문 '올해의 차'로 선정된 것을 기념해 캠페인을 마련했다.

캠페인 기간 렉서스 공식 서비스 센터에 입고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브레이크 패드 및 디스크 ▲부동액 ▲에어컨 필터 ▲와이퍼 러버 및 블레이드 등의 가격과 공임을 10% 할인한다. 또 캠페인 기간 내 서비스 입고 고객에게 '3WAY 패커블 가방'을 증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렉서스 전기차(RZ 450e, UX 300e)에 대한 무상 점검 서비스도 함께 진행한다.

강대환 렉서스코리아 부사장은 "차량 관리가 필수적인 겨울철, 렉서스 오너분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드라이빙을 위해 이번 서비스 프로모션을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모든 고객들이 불편함 없이 렉서스 브랜드의 특별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국의 렉서스 딜러사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국 렉서스 공식 서비스 센터 및 렉서스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